

1 개요

부대각본은 구좌읍 평대리 일대에서 부대각이라는 인물이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난 부대각은 장수의 위엄을 보였으나 집안 사람들의 방해로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2 내용

부대각은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큰형은 열다섯쯤 나고, 둘째 형은 열 살쯤 나고, 부대각은 다섯 살 적의 일이었다. 하루는 부대각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소, 말을 보라고 내보낸 뒤에 아이들을 살피기 위해 가보았더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큰 소를 던지고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아이들의 거드랑이 아래에서 날개를 발견하고, 부씨 가문이 망할 것을 염려하여 인두로 큰아들과 둘째아들의 날개를 지졌다. 그 바람에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죽고, 어리다고 그대로 놓아둔 막내아들 부대각만 살아 남았다.

부대각은 열다섯살이 되자 평대리와 제주성을 날아서 오고갔다. 하루는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가족 모두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아 있던 부대각이 집안을 살피다가 외양간에 소도둑이 든 것을 보고 쫓싸게 날아가 도둑을 잡았다.

부대각은 한양으로 날아가 남산에 이르러 '사람을 해치는 국마를 잡는 이에게 천금상을 봉한다.'는 방을 보게 되었다. 부대각은 자신이 잡겠다고 하였다. 남산에 올라가보니, 마침 국마가 내려오고 있었다. 부대각이 국마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꿇도록 호통을 치자, 국마가 부대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대각은 상시관에 들어가 국마를 바치니 소원을 말하도록 했다. 부대각은 군사 삼천 명과 군함 서른세 척을 내주면 대국을 치겠노라 답하였다.

부대각은 큰 싸움을 앞두고 선묘라도 한번 볼 요량으로 제주도로 들어왔다. 하도리 수진포에 배를 대고 평대리로 가서 선산에 들렀다. 평대리 부씨 댁에서는 부대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선산에 있는 장군 모양을 한 바윗돌이 한 해 두 해 커지는 것 덕분에 저런 인물이 나왔다고 여기고 그 바윗돌을 쇠방망이로 쳐부수고 말았다.

부대각은 성묘를 마치고 배에 오르자 난데없이 날씨가 좋지 않아 배를 띄울 수 없어 군사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부대각은 옥황에 무쇠방석을 내려달라고 등장을 올렸다. 물 위에 무쇠방석이 떠오르자, 부대각은 무쇠방석 위에 올라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자 부대각이 물 아래로 인도하라 명하니 방석과 함께 가라앉아 죽었다.

부대각은 바다에서 죽어 신체도 찾지 못하였으나, 부씨 댁에서는 가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놓고 일년에 한 번 묘제를 지냈다. 집집마다 굿을 할 때는 부대각을 위로해야 덕을 받는 법이라고 전한다.

3 특징

부대각은 장사전설의 주인공으로도 널리 회자되는 인물이다. 부대각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났으나 어쨌든 살아남아 장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에 속하겠다. 다만 이러한 인물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예사이나 부대각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인물의 내력이 신화가 되고 그 주인공이 특정한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달리 보면 가문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인물이기도 하니, 당신본풀이에서 더러 보이는 유사한 사례를 함께 견주어 이해할 여지도 많음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겨드랑이, 날개, 아기장수, 장사, 제주성, 한양, 남산, 하도리, 수진포, 국마, 천금상

5 원전 서지사항

부대각본(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6 관련 자료

평대부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95)